

『醫林撮要』의 板本과 최근 연구 성과

안 상 우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Introduction of several printing types on the 『Uirimchwaryo』

Ahn Sang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Uirimchwaryo(醫林撮要)』 is a medical book that takes a model of written in the middle of Chosun dynasty. In the contents side, it seems to unite a Korea medicine with the Geum-Won Dynasty(金元時代) in ancient China. We can think much of the value that it combines theory with experience, choosing the merits of 『Uibangyuchwi(醫方類聚)』 which were the masterpieces of the first half of Chosun Dynasty and it increased a practical use to choose easily prescription in the clinic. This book which was proofread and published by imperial physician Yang Yaesoo(楊禮壽, ? ~ 1597) is not exist. In this condition, existing print type is added by scholars only after 『Donguibogam(東醫寶鑑)』 was compiled.

When the academic conference was held in last year, I introduced a Chosun printed book in Japan's possession, moreover I survey more documents. I will investigate and arrange a few old printed books that are handed down to Chosun and Japan. In addition, I will present Korea and foreign researching results, trend about 『Uirimchwaryo』 which is finished lately and researching materials about translating into current Korean language. We can evaluate the value and effect of 『Uirimchwaryo』 in Chosun dynasty of medical history.

Key words : 『Uirimchwaryo』, printing type, translation, Editions, YangYaesoo, a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醫林撮要』는 시기적으로 조선 중기 『東醫寶鑑』의 선구적 형태를 지닌 의방서로 내용면에서도 민족전승의 고유의학과 麗末鮮初에 도입된 金元의학이 融合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또 조선 전기 의

서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의 장점만을 고루 취하여 이론과 경험을 결합하였고, 임상에서 처방을 쉽게 골라 쓸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明宗代에 太醫 楊禮壽(?~1597)가 校正하여 刊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책은 初刊本의 간행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現傳本은 오직 『동의보감』 편찬 이후에 後人들에 의해 증보된 것이다. 게다가 傳本도 극히 드문 편이어서 국내에는 完帙本이 남은 것이 없고 규장각과 몇몇 대학도서관에 欠本 散帙이 收藏되어 있을 뿐이다.

지난 2003년 국제동아시아의학사 학술대회를 계기로 입수된 日本傳存 『의림촬요』(완질본¹⁾)을 조사했던 필자는 이번 기회에 조선과 일본에 전해지는 古版本 몇 가지를 조사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간 원간본(이른바 8권본)과 증보판(13권본)의 상이점과 원작자에 대한 시비 그리고 續集의 발견으로 인해 편찬사실에 관한 다소의 논란과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²⁾ 다시 말해 13권으로 증보되는 과정과 내용에 대한 의문, 그리고 원작자가 정경선인가 양예수인가라는 문제, 속집의 간행경위 및 증보한 내용과

원작과의 차이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현전 판본의 정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아울러 근간에 이루어진 『의림촬요』 관련 국내의 연구 성과와 동향, 그리고 국역과 관련 연구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차후 내용 연구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귀중한 의서에 대한 몇 가지 평가를 모아 대비해 봄으로써 조선의학사에서 갖는 영향성과 가치를 자리매김해 보고, 향약의학 혹은 전승된 토착의학과 수입된 외래의학이 접점을 이루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現傳 古版本

『동의보감』 歷代醫方に 기록된 ‘鄭敬先 撰, 楊禮壽 校正’이라고 되어 있어 이 책의 초기 판본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대략 明宗代에서 宣祖 初葉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 逸失되어 전하지 않는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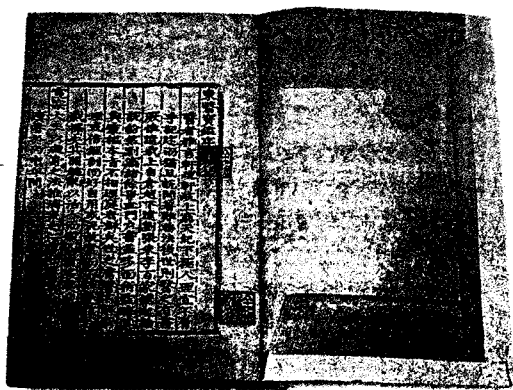


그림 1. 東醫寶鑑과 東醫寶鑑歷代醫方に 기록된 醫林撮要

1) 마이크로필름,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장.
2) 주로 金洪均의 연구 성과를 참조.
3) 李盛雨. 食經大全, 鄉文社, 1981, p. 477.

이하 분류에서 인쇄 방식으로 구별되는 명칭을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초간본의 실물이 남아있지 않아 그 모습을 전혀 짐작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이후 후대 판본인 현전본이 얼마만큼 변형된 모습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있어 대개 이들의 사후에 제자 혹은 추종하는 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 古活字本

이 판본은 改鑄甲寅字(戊申字)의 하한연대에 가까운 고활자본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으며 대략 仁祖肅宗 年間에 인쇄된 것으로 여겨진다. 13권으로 이루어진 이 판본은 본문 첫 권에 앞서 별권을 이루는 歷代醫學姓氏를 실고 있다. 이것은『醫學入門』이 도입된 이후 동일한 제목의 『의학입문』역대의학성씨를 수정, 증보하여 변형한 것이 분명하다. 특히 여기에는 楊禮壽와 許浚이 本國名醫에 나란히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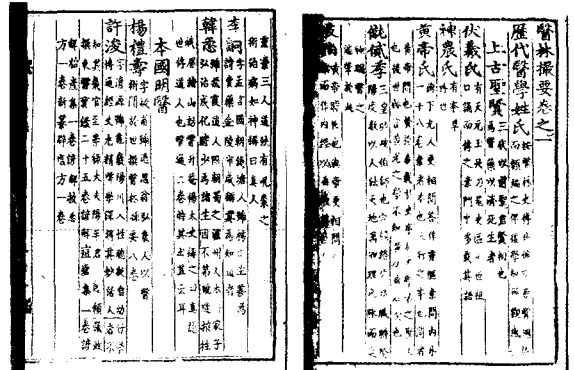


그림 2. 醫林撮要-歷代醫學姓氏와 本國明醫조에 오른 楊禮壽

이 판본의 특징과 소장현황, 전본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규장각 소장본

- 청 구 기 호 고7608-8
- 서명 / 저자 醫林撮要/ 楊禮壽(朝鮮) 撰
- 출 판 사 항 [刊地未詳]:[刊者未詳]:[肅宗2年(1676)]:
- 형 태 사 항 10冊(零本), 四周雙邊, 半葉匡郭 24.3×16.7cm. 10行18字 注雙行, 版心: 上下內向花紋魚尾, 34×22cm.
- 주 기 사 항 內賜記: 康熙十五年十一月十九日 內賜行副護軍 … 醫林 撮要一件 命除謝恩右承旨臣丁(手決)
- 인 기 所藏本: 卷5, 10, 11(3冊)缺 印: 內賜之記, 密陽朴氏家藏
- 사 부 분 류 子部 醫家類
- M / F 번호 M/F85-16-280-C
- 마스터번호 19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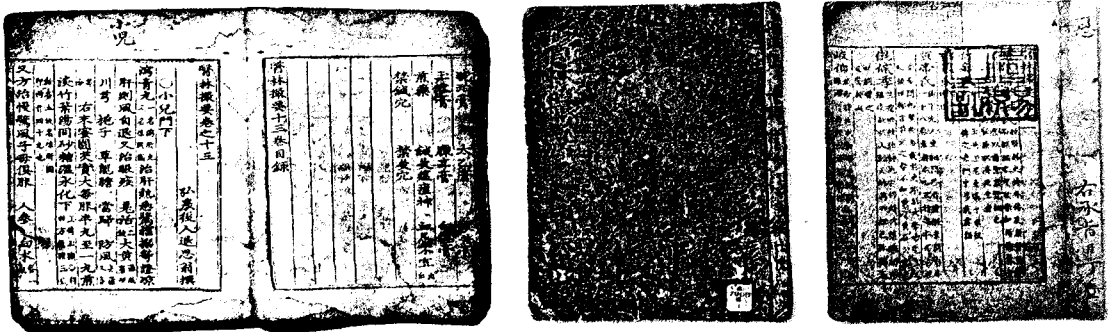


그림 3. 규장각 소장본 의림철요

형태서지와 개요는 우선 규장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소장처와 전본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규장각 소장본은 전13권13책 중에서 권5, 권10, 권11의 3책이 결권이다.

부족한 권은 고려대와 타 소장처에 소장되어 있어 국내 소장본만으로 1질을 꾸밀 수는 있으나 한국의학대계에는 수합이 어려웠는지 2권이 빠진 채로 11권만이 영인되어 있다.⁴⁾ 규장각소장 고서해제 등에는 간행연대가 숙종2년(1676)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아마도 內賜記의 기록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다. 또 하나 규장각 소장본의 특징은 본문의 군데 군데 加點이 붙어 있고 판면의 상단 여백에 소장자 주석이 다량 남겨져 있는 점이다. 가점은 소장자가 책을 읽으면서 중요점을 표시한 것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나 주석의 경우, 우선 적지 않은 분량인데다가 내용 또한 醫論, 處方加減法, 醫案, 醫話, 筆記 등을 아우르고 있어서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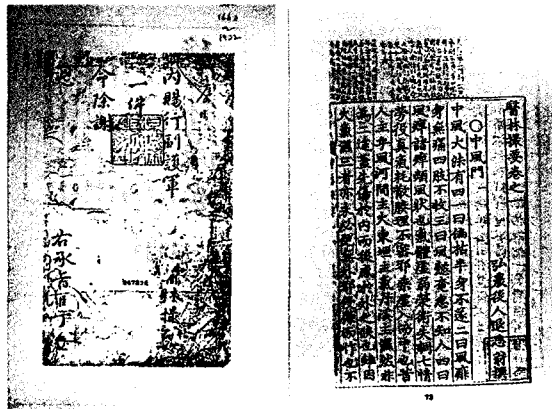


그림 4. 奎章閣 소장본의 內賜記와 상단여백의 필기

현재 알려진 바 이 판본의 소장처로는 규장각과 일본 內閣文庫 이외에도 경희대학교 8책, 김두종 1책(4권), 조병순 1책(7권) 등에 소장되어 있다.⁵⁾ 기타

고려대, 경북대, 한독의약사료관 등에도 소장되어 있으며, 저자는 최근 개관 준비 중인 허준기념관에 또 1책이 수장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실물은 조사하지 못했다. 경희대학교 소장본은 필사본 1책만이 확인되었다. 소장처별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려대 소장본

- 청 구 기 호 C6 A78 8-10, 13 화산 화산 화산 화산
- 저자 / 인명 양예수
- 서명 / 저자 醫林撮要 / 楊禮壽(朝鮮) 撰.
- 판 차 木活字本
- 출 판 사 항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仁祖13(1635).
- 형 태 사 항 零本4冊 (全13卷13冊): 四周雙邊 半郭 23.6 x 16.0 cm, 有界, 10行18字, 內向花紋魚尾; 34.5 x 21.8 cm.
- 소 장 내 용 卷之八-十, 十三
- 등 록 번 호 461228592 C6 A78 8 화산
461228592 C6 A78 9 화산
461228592 C6 A78 10 화산
461228592 C6 A78 13 화산

◇ 경북대 소장본

- 청 구 기 호 중앙古翠 615.32 양640 -13
- 서명 / 저자 醫林撮要 / 楊禮壽 撰
- 원 저 자 명 양예수
- 판 사 항 金屬活字本(戊申字).
- 발 행 사 항 [刊寫地不明]: [刊寫者不明], [1668-].
- 형 태 사 항 零本1冊: 四周雙邊 半郭 24.7x17.3 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三瓣花紋魚尾; 32.8x21.7 cm.
- 일 반 사 항 版心題: 醫林撮要
表題: 醫林撮要
- 본 관 소 장 卷13

4) 뒤의 필사본과 영인본 항에서 재론함.
5) 李盛雨. 위의 책, p.477.

* 경북대에는 또 다른 필사본 의림촬요가 소장되어 있으나 내용이 전혀 다른 후대 편집본이다. 뒤의 필사본 향에서 재론.

◇ 金斗鐘本
한독의약사료관 일산기념문고 목록에 올라 있다.⁶⁾

◇ 趙秉舜本
省巖古書博物館(미확인)

◇ 一山記念文庫本

[書名] <한-118,2430> 醫林撮要(2책)
[著者] 楊禮壽撰
[年代] 李朝顯宗3년(A.D 1662년)
[板種] 活字版印本 22.2×34.2cm, 四周雙邊
[框郭] 17.1×25.4cm. 有界, 10행18자
[所藏者] 韓獨藥史館(一山記念文庫本)

이상 국내 소장 몇 가지 판본을 대비해 보면 크게 보아 금속활자본과 목활자판으로 대분되는 것 같고 간행연대는 17세기 중후반으로 각기 약간씩 차이가 있다.

□ 소장처 판본별 특징 대비표⁷⁾

특징\소장처	奎章閣	高麗大	慶北大	一山記念文庫	內閣文庫
간행시기	肅宗2年 (1676)	仁祖13 (1635)	1668-	顯宗3년 (1662년)	*顯宗15年 (1674)
存 卷	10冊(零本) 1-4, 6-9, 12-13	4冊(零本) 권8,9,10,13	1冊(零本) 권13	2冊(零本)	13卷13冊(完本)
活 字	*戊申字	木活字本	金屬活字本 (戊申字).	活字版印本	*甲寅活字印本 訓練都監活字
형태사항	四周雙邊, 半葉匡郭 24.3×16.7cm. 10行18字 注雙行, 版心: 上下內向花紋魚尾, 34×22cm.	四周雙邊 半郭 23.6×16.0 cm, 有界, 10行18字, 內向花紋魚尾 ; 34.5×21.8 cm.	四周雙邊 半郭 24.7×17.3 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三瓣花紋魚尾 ; 32.8×21.7 cm.	22.2×34.2cm, 四周雙邊 17.1×25.4cm. 有界, 10행18자	四周雙邊有界, 每半版匡廓 縱25.0×橫16.5cm. 10行行18字 注雙行
특 징	內賜記: 康熙十五年十一月十九日 內賜行副護軍 ... 醫林撮要一件 命除謝恩右承旨臣丁(手決)		版心題 : 醫林撮要 表題 : 醫林撮要		上下右緣截斷改裝
印 記	印: 內賜之記, 密陽朴氏家藏.				

6) 『食經大全』에는 김두종 소장 1책으로 되어 있으나 韓獨藥史館 『古代醫藥書目録』에는 2책으로 되어 있다.

7) 판본별 소장처의 서지목록에 의거하였으며, 內閣文庫 소장본은 三木榮의 『朝鮮醫書誌』에 수록된 서지사항에 따름. 단, *는 崔秀漢의 『朝鮮醫籍通考』를 참조하여 보충. pp.52-55.

기타 필자가 확인한 전본 중에 일본 武田藥品 杏雨書屋의 소장본이 있다. 이 책은 의사학자 三木榮이 소장했던 책으로 아마도 조선 체류시절에 입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 관한 정보는 그의 저서『조선의서지』에 수록된 도판 설명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⁸⁾

第十四圖 醫林撮要 卷九第一丁表
後期甲寅活字 25×16.5cm 顯宗傾刊 (著者藏)

필자가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杏雨書屋 소장본의

版面과 책에 실린 도면의 모습은 일치하며, [三木文庫]라고 새긴 正方形陰刻 印記가 있는 소장인이 찍혀 있어 같은 책이 분명하다. 포갑만 다시 했을 뿐 장정은 원본상태 그대로 남아 있으며, 零本 1책(卷九)뿐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크기나 형태사항이 內閣文庫 소장본과 동일하여 기타 서지적 특이점은 없으므로 일본 전존본 항에서는 內閣文庫 소장본을 위주로 설명하고 이 판본은 다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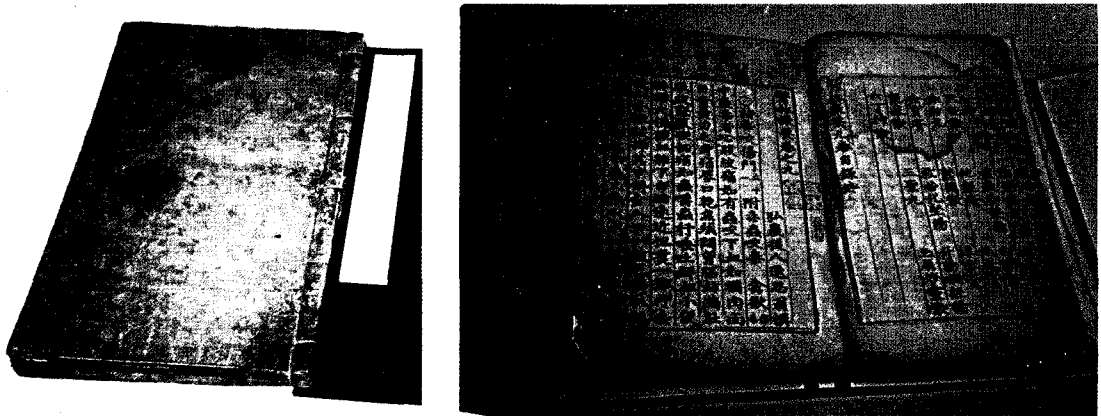


그림 5. 日本 杏雨書屋 소장본(三木榮 舊藏本)

2) 醫林撮要續集

2권2책으로 상권은 실전된 채 하권만 전해지고 있다.『의림촬요』 원간본(8권본)과 후대 13권본의 편찬과정을 밝혀주는 귀중 자료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이며 훈련도감활자이다. 이 책에 대한 간략서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제/저작사항 醫林撮要續集 / 內醫院刊編 : 李裕; 李希憲 校
 판 사 항 古活字本(訓練都監字)
 발 행 사 항 [刊寫地未詳]:[刊瀉者未詳], 1608
 형 태 사 항 75張 四冊裝, 半廓 24.9×17.0cm 11行20字
 注雙行, 內向三葉花紋魚尾, c31.7×21.1cm.
 주 기 사 항 刊記: 萬曆三十六年(1608)
 분 류 기 호
 청 구 기 호 한古朝68-104

8)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附圖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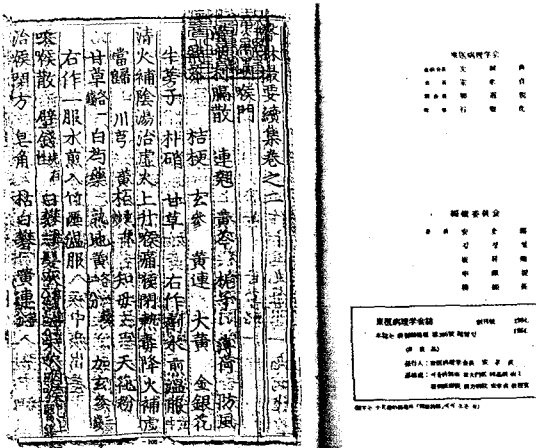


그림 6. 의림촬요속집의 판면과 수록 논문

3) 日本傳存本

현재 日本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에 소장된 완질본¹¹⁾은 日本 茨城大學 眞柳誠 교수의 알선과 中國 中醫研究院 鄭金生 교수, 그리고 北京中醫藥大學 梁永宣교수의 호의에 힘입어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한의학연구원에 입수되었다. 전13권13책으로 앞서 소개한 국내 소장 甲寅字體 活字本과 동일 판본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소장본에 비해 缺卷이 없고 일부 글자에 결획 등이 발견돼 동시기 인본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또 군데군데 일본인 소장자의 필기가 다수 있어 참고가치가 있다.

류희영⁹⁾에 의해 소개된 바 있는 이 책은 주로 『萬病回春』, 『古今醫鑑』, 『醫學入門』, 『丹溪心法附餘』 등 明末에 중국에서 간행되어 조선에 입수된 의서로 『동의보감』 편찬에 주요 참고 서적이 되었던 것들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의림촬요』 원간본에 없었던 내용으로 급히 추록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동의보감』에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하권의 내용과 현전 13권본의 동일 조문을 채록 조사하여 대조 비교해 보니 대다수가 일치하였다. 다만 동일 조문은 거의 일정 부분에만 집중되지 않고 매 문마다 후반에 골고루 분포한 것으로 보아 후대 대폭적인 전면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후대 증보 개편 과정은 이미 논구가 있었으므로 여기서 생략하고 기 발표 논고를 참조하기로 한다.¹⁰⁾

원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 보존되어 있으며, 마이크로필름 형태(MG2-1998-15)로 제작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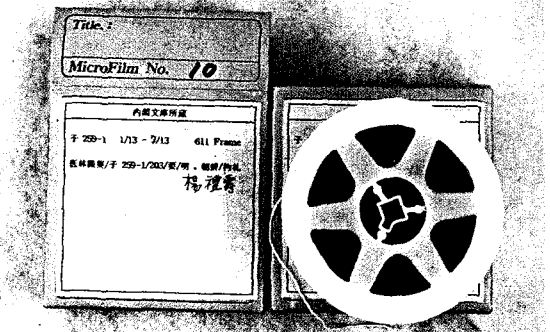


그림 7. 內閣文庫 소장본(13권 완질)의 마이크로필름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장)

幕府시절 江戸醫學館을 열어 考證醫學派를 주도했던 丹波元簡은 그가 펴낸, 『觀聚方要補』 10권과 『救急選方』 2권에서 고금의 대표적 처방을 집성하였는데 그 중에 『東醫寶鑑』, 『鄉藥集成方』, 『李宗準紫金丹方』과 아울러 본서의 治方이 수록되어 있다.¹²⁾

9) 柳熙英, 醫林叢要續集의 의학적 가치, 대한동의병리학회지, 창간호, 1984.
 10) 관련논문 참조.
 11) 일본내각문고 소장본에 대한 기본적인 서지사항은 三木榮, 위의 책, pp.84-86을 참조.
 12) 三木榮, 위의 책, p.355.

일본에 간 조선통신사의 수행의관들과의 의학문답을 기록한 『韓客筆譚』에 보면, 외국의 太醫令 橘元勳과 조선 통신사 良醫 趙崇壽와의 대화 중에 언급된 조선에서 상용하는 의서로서 『鄉藥集成』, 『東醫寶鑑』, 『胎産診解』, 『痘疹診解』, 『鍼灸經驗方』, 『經驗方』, 『千六集』, 『南溪集』, 『濟齋集』등과 함께 본서의 이름이 등장한다.¹³⁾

또 1748년의 통신사 문답 기록인 『兩東筆語』에도 역시 東都醫官 丹羽貞機와 조선 良醫 趙活庵과의 대화 중에서 『醫林撮要』에 기재된 動物乳와 玉樞丹, 청심원의 용법 구별을 논변한 내용이 나온다.¹⁴⁾ 이 로보아 아마도 조선 후기 일본 의가들 사이에서, 『醫林撮要』를 비롯한 조선 의서가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朝鮮通信使 行렬도 중 醫官

13) 안상우 외. 동아시아전통의학권 소재 한국본 의학문헌 공동조사연구, pp.69-70.

14) 안상우 외. 위의 책, pp.8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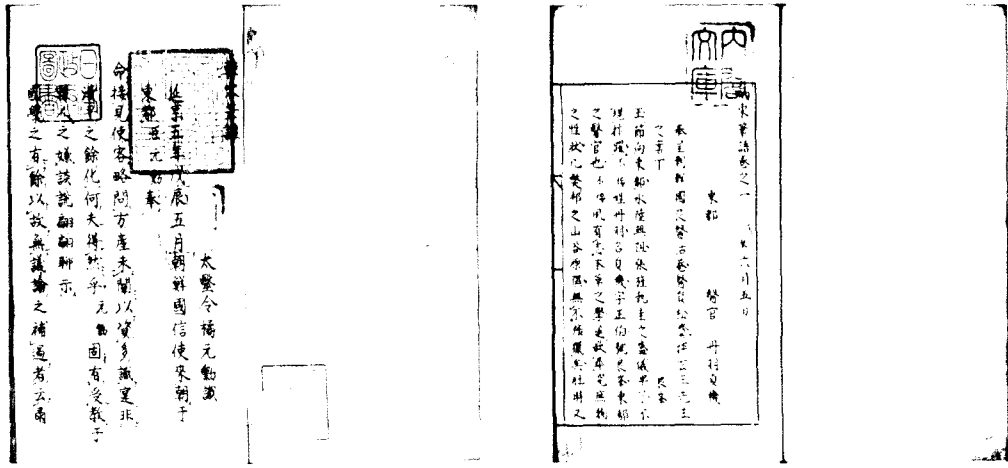


그림 9. 『韓客筆譚』과 『兩東筆語』

4) 日本 抄本

三木榮의 『朝鮮醫書誌』에 등장한다. 이것은 幕府 시절 『의방유취』를 소장했던 多紀氏 家門의 多紀元胤이 自筆 抄錄한 것으로 寫本 1책이다. 그의 책에는 京都大學圖書館 富士川本으로 기록되어 있다. 多紀元簡의 장자인 多紀元胤은 『中國醫籍考』를 펴낸 의학문헌서지의 대가이며, 富士川은 일본의학사를 집필한 최근세 저명한 醫學史家이다. 崔秀漢의 『朝鮮醫籍通考』에도 인용되었으나 서지사항만 목록에 올라있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朝鮮醫書誌』에 피력된 이 책의 필사 동기를 살펴보면 필사자인 多紀元胤이 『의림촬요』가운데 인용된 의서 중에 자신이 잘 알지 못했던 책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藥方을 抄出하여 작은 책자로 엮었다는 것이다.¹⁵⁾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每半葉板匡 세로 18 × 가로 14cm, 11行行24字

版心: 聿修堂이라 찍힌 罨紙 사용.

총24매(의학성씨 2매, 본문 22매)
多紀氏藏書印

간단히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머리에 역대의학성씨를 초록하고 본문에는 鈔本의 권1과 권2의 中風門, 傷寒門 付 中寒感冒, 癩疫門 付 蝦蟆癩, 大頭天行에서 佚書라 생각되는 것과 朝鮮 俗方을 抄出하였다. 채록 방식은 먼저 引據書名을 들어놓은 다음 그 아래 내용을 적어두었다. 채록된 인용서명은 아래와 같다.

『濟衆方』, 『名醫常用方』, 『必用方』, 『何氏方』, 『靑囊集』, 『醫家大方』, 『本朝經驗』, 『中朝質問方』, 『本國退思翁所製方』, 『烟霞方』, 『經驗救急方』, 『吳松張杏園方』, 『河中樞方』, 『經驗秘方』, 『中書李五山傳』, 『徽府秘方』, 『本國鄭北窓所製』, 『惡病(疾)治療方』, 『俗方』, 『藥性論』, 『本朝選常用經驗方』, 『中朝傳習』 등이다.

15) 三木榮, 위의 책, 1973, pp.352-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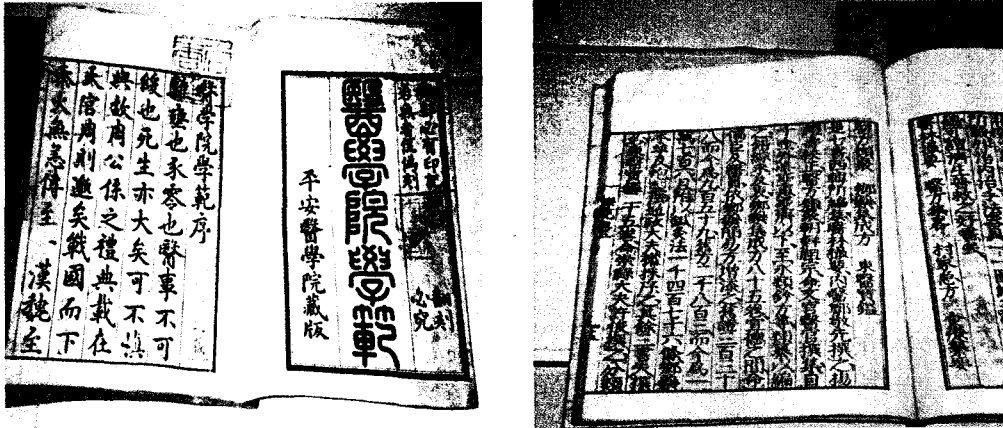


그림 10. 醫學院學範과 의림촬요 수록부분

5) 필사본과 영인본

◇ 경희대 소장본

서명저자 醫林撮要
 출판사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刊行年不明]
 형태 1冊1函 ; 29.5 × 19.8 cm
 언어 chi
 분류기호 619.5
 등록번호 30003753
 청구기호 古619.5의 298
 소장처 경희대학교 서울 중앙도서관 한적실

이 필사본의 표지에는 분명히 『의림촬요』라는 제목이 달려있지만 내재에는 『攷事新書』 醫藥門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실제 『고사신서』 권지십오 의약문과 비교해 볼 때 58板부터 마지막 장까지 7장이 떨어져 나간 것을 제외하곤 『고사신서』 활자본¹⁶⁾과 내용과 면수는 물론 행자수까지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내용상 구별되는 차이점을 없다. 따라서 『의림촬요』의 판본을 고찰할 때에는 전혀 무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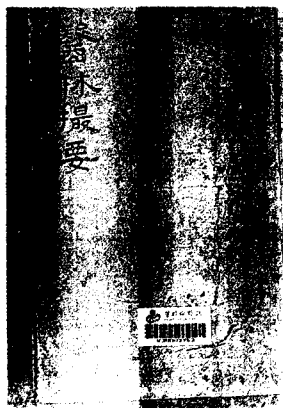


그림 11. 경희대 소장본

◇ 경북대 소장 필사본

청구기호 중앙古 615.32 양64 ◦
 중앙古復 615.32 양64 ◦
 형태사항 1冊: 無界, 行字數不定 ; 19 x 19.3 cm.
 등록번호 0786244
 0786244

이 필사본은 『의림촬요』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필사 시기나 등사자도 알 수 없으며, 대략 잡병에 대한 병론과 처방을 채록하여 적어놓은 것인데, 서발은 물론 목차, 후기가 없어 전혀 필사경위를 알 수 없고 병증문의 순서나 내용이 혼재되어

16) 한국의학대계, 44책 수록.

있어 아마도 간편 의서로 필사자 자신이 필요한 내용만을 간단히 채록해 둔 간편 의서로 보인다.

◇ 북한의 필사 영인본

전존하는 고판본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국역판을 간행할 당시 다시 毛筆로 등사한 원문본이 곁들여 나왔는데, 판면이 이름답고 정갈하다. 이 필사본의 특징은 원본의 일부 오자를 보정하는 등 교감이 이루어졌지만 별도의 주기를 남기지 않아 참고하기 어려운 점이다. 1999년 해동의학사에서 국역한의학대계(5)로 발행하였는데, 전체 5분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매 책마다 수록내용에 상응하는 원문이 책 뒤편에 실려 있다. 원문 권수와 국역본 분책은 대략 다음과 같이 배열되어 있다.

- 제1분책(대계 5) 역대의학성씨, 권1-권3, 원문
- 제2분책(대계 6) 권4-권6, 원문
- 제3분책(대계 7) 권7-권9, 원문
- 제4분책(대계 8) 권10-권12, 원문
- 제5분책(대계 9) 권13, 찾아보기(처방, 병증), 원문

대의학성씨 부분은 규장각 소장본의 書影과 비교해 볼 때 印記까지 동일하여 그들이 남한의 소장 판본을 구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부분만 고활자본을 그대로 영인해 넣은 것은 아마도 후대에 추록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려 한 의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활자판본의 영인본으로는 앞서 한국의학대계보다 앞서 黑潮社에서 1968년도에 출판한 적이 있다. 이 책은 8권본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권에 ‘終’자가 표기되어 있으나 책수를 억지로 맞추어 역대의학성씨와 8권을 한 책에 모아 출판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판면의 규장각본과 내각문고본을 대조해 보면 8권 끝부분에 이 같은 표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소장자가 임의로 써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 중에 몇 글자가 다른 경우가 보이나 이것이 후쇄 판본의 교정 결과인지 영인출판자의 가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책의 卷之一 역대의학성씨 첫 면에는 ‘宣賜之記’라는 款識가 있으나 內賜記는 빠져있다.

◇ 흑조사 발행 영인본

흑조사에서 발행한 영인본은 광곽과 판심을 없애고 내용만 2단으로 축쇄영인했기 때문에 원래 모습을 그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총목차에 해당하는 全目錄과 권1의 목록이 필사로 보입되어 있다. 권1의 첫면 하단에 원형과 정방형의 소장인 2과와 권8 끝장 마지막 행 하단에 원형 인기가 있다. 또 每卷의 첫 장에 弘農後人 退思翁撰이라는 명문이 들어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규장각 소장본은 전13책 중에서 권5, 권10, 권11 3책이 결권이다. 여강출판사에서 펴낸 한국의학대계에는 5권과 11권이 빠져 있고 권10은 채워져 있는데, 소장인이 다른 권책과 달리 없는 것으로 보아 보입된 권책으로 보인다. 인



그림 12. 북한에서 발행한 필사영인본의 판면

그러나 이 국역본에 첨부된 원문은 묘한 특색이 있는데, 권1의 역대의학성씨는 고활자판이고 나머지 13권은 새로 작성한 필사본이라는 점이다. 특히 역

면도 다소 분위기가 다른데 활자본의 번각본으로 보인다. 나머지 권책에는 매권 목록과 본문 첫장 하단에 정방형 소장인(密陽朴氏家藏)이 찍혀있고 내사기가 있는 표지 안쪽에 京城帝國大學圖書印이 찍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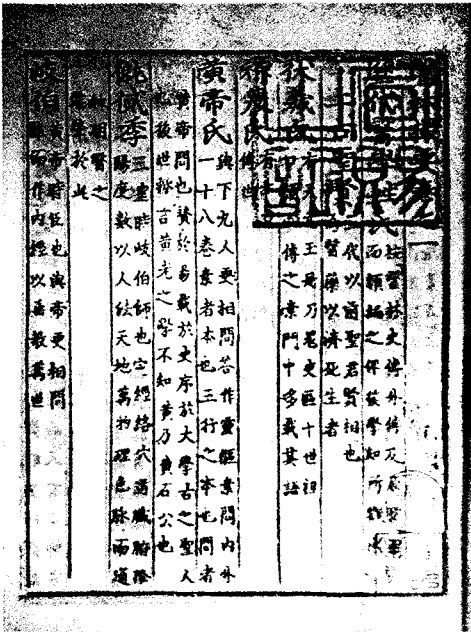


그림 13. 흑조사 발행 영인본

이상 그간 발행된『의림촬요』의 영인본을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醫林撮要, 서울: 黑潮社, 1968.
- 醫林撮要,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醫藥學篇, 8-10, 서울: 驪江出版社, 1988.
-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 8-10, 서울: 여강출판사, 1994.
- 醫林撮要, 韓國韓醫學大系, 8-10, 서울: 韓國人文科學院, 1999.

- 醫林撮要, 국역한의학대계, 5-9, 서울: 海東醫學社, 1999.

2. 국역본과 저작물

1) 국역본

1999년 해동의학사에서 국역한의학대계 시리즈(5)로 발행하였으며, 조현영, 태창득, 리성희, 김동일 공역으로 되어 있다. 조지훈 시인의 친부이자 제헌 국회의원을 지낸 조현영은 우리에게 『通俗漢醫學原論』과 『東洋醫學叢書5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988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이 국역본은 아마도 1980년대 『의방유취』,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등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¹⁷⁾

이 국역본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기록한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여 한자 원문과 같이 한 책으로 묶어 출판하였는데, 번역문 앞에는 독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차례를 새로 만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동의학 용어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주석을 달았으며 끝에는 처방 찾아보기를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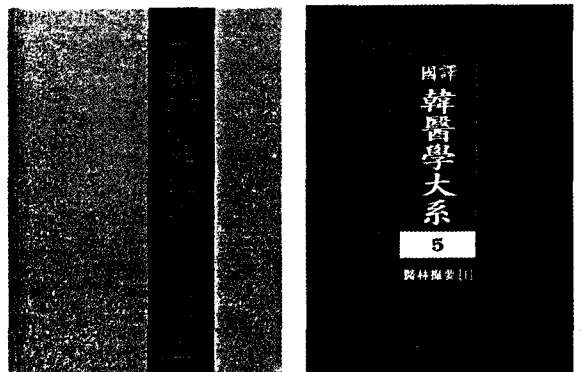


그림 14. 북한에서 국역한 국내출판본

1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동의학사전에는 1983년 출판으로 기록.

국역본 편찬진의 간단약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趙憲泳(1900.3.27 ~ 1988.5.23)

동의학박사.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주곡리에서 출생. 30세부터 自習으로 동의학에 대한 지식을 쌓았으며 日帝의 민족문화말살정책과 동의학을 천시하고 박해하는 책동에 대처하여 동의학의 특성과 우월성 및 그 활력을 논증하는 글들과 저서들을 많이 집필 편찬. 한국전쟁 때 北으로 간 이후 동의학 연구와 치료사업에 헌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장병에 대한 뜰치료법을 비롯한 가치 있는 동의치료법들을 많이 발표하였으며, 동의사 양성사업과 『동의 처방학』등을 집필. 『醫方類聚』 『東醫寶鑑』등 동의고전의 번역에도 크게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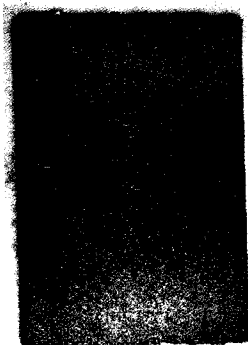


그림 15. 조헌영과 그의 저술

太昌得(1903.11.20 ~ 1978.7.20)

함경북도 명천군 만호리 빈농 가정에서 출생. 농사를 지으면서 자습으로 의학공부를 하여 18세 때 東醫師 자격을 취득. 그 후 民間醫師로 진료를 하면서 임상경험과 동의학에 깊은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1939년부터 1947년까지 진료와 교육 사업을 하였음. 1948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진료하다가 1960년부터 의과학원 동의학연

구소에서 연구사로 근무, 동의학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漢學에 대한 조예가 있어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 『醫林撮要』 등의 공동번역에 참여.

리성희(? ~ ?)

미상. 1983년 『醫林撮要』국역에 공동 참여. 교육과학연구원 실장¹⁸⁾

金東日(1935. 7. 20 生)

동의학 준박사. 평안북도 신의주시 유상동에서 출생. 63년 평양의학대학 졸업. 동의학연구소 연구사, 동의과학원 실장, 고려의학종합병원 과장, 부교수. 『동의학사전』 · 『동의용어해설집』 · 『동의용어사전』 · 『동의처방집』 등 많은 공동저작과 『東醫寶鑑』 · 『醫宗損益』 · 『醫方類聚』 · 『鄉藥集成方』 · 『方藥合編』 · 『醫門寶鑑』 등의 동의고전의 공동번역에 참여.

2) 관련 논문 및 해제류

□ 논문류

柳熙英. 醫林撮要續集의 의사학적 가치, 대한동의 병리학회지, 창간호, 1984.

朴贊國. 醫林撮要의 韓國醫學史的 價値에 관한 考察, 東洋醫學, 16/2, 1990.

金洪均. 金南一.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에 대하여, 경희한의대논문집, 21/1, 1998.

金洪均. 의림촬요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학원, 2000.

김홍균. 의림촬요와 동의보감의 비교고찰, 한국의 사학회지, 13/1, 2000.

김홍균. 의림촬요의 脇痛門에 관한 小考, 한국의 사학회지, 13/2, 2000.

김홍균. 의림촬요의 역대의학성씨에 대하여, 한국

18) 북한인명사전

의사학회지, 13/2, 2000.

김홍균. 향약집성방과 의림촬요의 비교 고찰, 한국
의사학회지, 14/1, 2001.

醫林撮要 紙二十八卷 康熙14年乙卯(肅宗元年,
1675) 刊本

醫林撮要 二十八卷 英祖19年癸亥(1743) 刊本

□ 해제류

편찬위원회. 『韓國圖書解題』. 서울:고려대학교부
설민족문화연구소, 1971, p. 421.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 355.

李盛雨. 『食經大全』, 서울: 鄉文社, 1981, pp.
477-478.

金信根. 『韓醫藥書攷』,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7,
pp. 356-360.

崔秀漢. 『朝鮮醫籍通考』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p. 52-55.

동양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事典』.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p. 135-136.

安相佑. 醫林撮要續集 - 醫林에 부는 새 바람.(고의
서산책26회). 민족의학/270호, 2000. 3. 20일자.

安相佑. 醫林撮要 - 일본에 전해진 조선의학 대표
명저.(고의서산책199회). 민족의학/461호, 2004.
4. 26일자.

□ 海東文獻總錄

- 金佺의 海東文獻總錄 目錄 醫書類 中19)
醫林撮要 所撰 楊禮壽校正

□ 醫學院學範

- 畑柳安의 醫學院學範에 나오는 朝鮮醫書 中20)
醫林撮要 醫方集畧 村家急方 食療纂要 醫方類
聚 鄉藥集成方 東醫寶鑑是七書西韓所編集 醫林
撮要 內醫鄭敬先撰之, 楊禮壽校正,

□ 기타 서명 기록

- 『芸閣冊都錄』에 醫林撮要伍卷, 『西庫藏書錄』에
醫林撮要 十三冊本朝鄭敬先著라고 한 기록이
보인다21).

- 伊藤東涯의 『三韓紀略』文籍彙 中の 의서류
醫林撮要 楊禮壽撰22)

- 松澤老泉의 『經籍答問』에도 朝鮮醫書 중에 『醫林
撮要』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다.23)

3. 關聯자료 소개

1) 高進속의 關聯 기록

□ 攷事撮要 수록 關聯내용

- 魚叔權의 攷事撮要 수록 書冊印紙數

2) 北한의 해제

『醫林撮要』에 대한 評價와 北한의 고려의학에서
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 김동일의 해제와 기
고문을 關聯 자료로써 소개한다. 첫 번째 北한의 동
의 잡지 기고문은 첫머리와 말미의 김일성 교시와
수사적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을 수록하였다.

19) 金佺. 海東文獻總錄, 서울:學問閣, 1969.

20) 三木榮, 위의 책, pp.384-385.

21) 村家救急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문에서는 村家急方으로 되어 있다.

22) 三木榮, 위의 책, p. 86

23) 三木榮, 위의 책, p. 383.

24) 三木榮, 위의 책, p. 385.

두 번째 해제는 시일이 지난 뒤에 다시 쓴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간결하게 압축되어 있다. 문투도 남한의 표준어법으로 다듬어져 있어 출판사에서 가필 혹은 윤문한 것으로 여겨진다.

1) 의림촬요에 대하여²⁴⁾

(앞 절 생략)

『의림촬요』는 『동의보감』보다 앞서 출판된 책으로서 당시 우리나라 동의학의 발전 면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동의학고전의 하나이다. 『의림촬요』가 처음 출판된 년대는 이 책에 발문과 서문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동의보감』에 인용된 기록을 보면 이 책은 정경선이 편찬하고 양례수가 교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의림촬요』는 1635년에 13권 13책으로 재판된 책이며 양례수가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편찬자 양례수는 16세기말17세기 초의 이름난 의학자인 허준의 선배로서 의술에 능하여 명의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뿐 아니라 한때 어의로도 활동하였다. 『의림촬요』는 저자 자신의 오랜 기간의 의료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동의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종합하여 질병을 120개의 동의학적 병증문으로 가르고 그에 따르는 원인과 증상, 치료법과 처방들을 추려서 써놓은 간결하면서도 실용성 있게 되어있는 책이다.

이 책의 내용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권; 첫머리에는 력대의 이름난 의사 226명의 치료활동과 동의학 책 편찬에 대하여 간단하게 써여 있다. 그리고 중풍문, 통풍문, 상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권; 온역문, 반진문, 내상문, 서증문, 종창문, 조증문.

제3권; 화열문, 울증문, 비만문, 열격문, 구토문, 탄산문, 해역문, 적취문, 기중문, 담음문.

제4권; 해수문, 성음문, 학질문, 광란문, 설사문, 리질문, 탈홍문.

제5권; 허손문, 변탁문, 로극문, 정충경계문, 건망문, 전광간증문, 치증문, 귤증문, 사수문.

제6권; 삼소문, 각기문, 위증문, 마목문, 산증문, 현훈문, 두통문, 제충문, 위완문, 복통문.

제7권; 각기문, 협통문, 이통문, 비병문, 면병문, 안목문, 구설문, 아치문.

제8권; 후비문, 혈증문, 치루문, 한증문, 림폐문, 비결문, 황달문.

제9~10권; 의파에 해당하는 병증문.

제11~12권; 부인과에 해당하는 병증문

제12~13권; 소아과에 해당하는 병증문, 잡방문.

이와 같이 되어있다.

이 책은 내용과 편찬형식에서 일련의 좋은 점과 특징적인 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책을 림상의사들이 참고하기 편리하게 진료편람식으로 편찬한 것이다.

이 책에는 림상에서 흔히 보는 질병들을 병증문으로 구분하고 그 병증문마다에 의사들이 초보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총론적인 내용을 주었다. 또한 증을 갈라놓은 각론에서는 동의치료원칙에 준하여 증상과 처방들, 찜질하는 법, 침뜸 치료법을 줌으로써 의사들이 리용하기 편리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삼소문(소갈병)에서는 먼저 소갈병이 어떤 병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쓴 다음 증상에 따라 상소, 중소, 하소에 나누어 해당하는 치료원칙에 맞게 효과있는 동의처방들과 단방들, 식료료법들을 써놓았다. 이 책에는 또한 의사들이 각이하게 나타나는 증에 맞게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병증에 따라 쓰이는 동의처방(복방)을 무려 2,700여개나 써놓았다. 둘째로, 『의림촬요』가 독특한 새로운 형식의 체계로 편찬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동의학 책들과는 달리 이 책은 차례를 책의

25) 김동일. 의림촬요에 대하여, 동의학·동의고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제3호(루게 45), pp.47-48.

첫머리에 다 주지 않고 매 권의 앞에 놓았으며 매 병증마다 총론적인 내용을 준 다음 증상에 따라 증을 갈라놓고 그에 쓰이는 치료법과 단방, 식사료법, 음식금기 등을 기재하였다. 또한 처방들에서는 맛음증과 처방조성, 약만드는 법과 쓰는 법들을 자세히 써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훈증과 찜질법, 침뜸 치료법들을 간결하게 소개하였다.

셋째로, 병치료에서 식사료법이 가지는 이이와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다.

매 병증마다에서 맨 먼저 식사료법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에 대한 항목을 설정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의사들이 병치료에서 식사료법에 항상 주의를 돌리도록 하였다.

넷째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은 우리나라 실정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우리의 민족의학을 더욱 풍부히 발전시킨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편찬하는데서 『의방유취』, 『향약집성방』, 『구급방』, 『간이벽온방』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동의학 책들을 많이 인용했을 뿐 아니라 저자 자신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경험한 효과적인 처방들과 해당 시기에 활동한 우리나라의 이름난 의사들인 하종해, 임언국, 정렴 등의 우수한 경험처방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 나는 약초들을 기본으로 하여 될수록 아무 때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처방들과 단방들을 선택하였으며 약의 용량도 우리 인민들의 체질에 맞게 고쳐 놓았다.

『의림촬요』는 당시의 우리나라 동의학을 발전시키는 데서와 이후 시기에 와서 우리나라 동의학 책들을 편찬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으며 오늘에 와서도 그의 풍부한 내용과 실용적 의의로 하여 그리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로 하여 귀중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편찬한 당시의 과학발전의 제한성과 저자 자신의 계급적치지로 하여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몸의 생리와 병증의 원인, 증상, 치료법들을 설명하는데서 봉건유교적이고 숙명론적인 내용들과 비과학적이며 비위생적인 것들이 들어 있는데서 찾아보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책을 비판적으로 보고 참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민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창조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인 동의학고전들은 다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알기 쉽게 번역하여 출판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들은 지난날 외래침략자들의 약탈로 말미암아 잃어졌던 이 책을 되찾아 번역을 하고 또 주해와 색인을 첨부하여 원문과 함께 출판하였다.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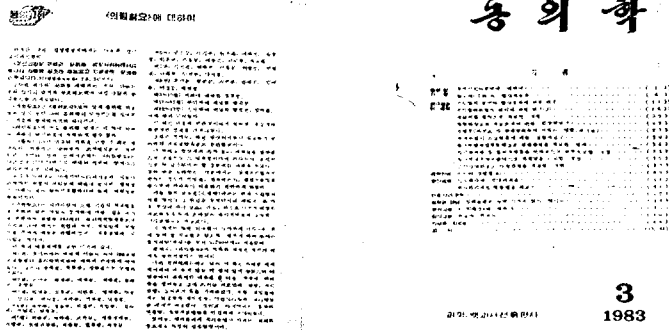


그림 16. 북한의 잡지 「동의학」동의고전 란에 소개된 의림촬요

2) 의림촬요에 대하여²⁵⁾

醫林撮要에 대하여

金東日 (고려의학과학원 교수)

東醫學의 발전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큰 의의를 지니며 東醫學의 발전을 위해서는 東醫學古典들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번역 출판하는 일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東醫學의 源流로서 동의예방치료에 크게 도움을 주는 東醫古典들이 많다. 그 가운데서 『醫林撮要』는 診療便覽式으로 편찬된 臨床參考書의 하나이다.

『醫林撮要』는 서문과 발문이 없어 처음 출판된 연대를 알 수 없으나 『東醫寶鑑』의 引用書目 중에 있는 기록으로 보아 『東醫寶鑑』(1613년 初刊)보다 앞서 편찬 출판되었으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13卷本은 조선 明宗 및 宣祖前期의 醫官 楊禮壽(?~1597, 字 敬甫, 號 退思翁, 弘農人, 本貫은 河陰)가 撰한 8卷 原本에 後인들이 增添하여 1635(仁祖 13년) 13卷 13冊으로 再版 간행한 것이다.

저자 楊禮壽는 유명한 의학자인 許浚(15401615)의 선배로서 博學하고 醫術에 능하였다. 內醫로서 順懷世子の 병을 못 고친 죄로 한때 투옥되기도 했으나, 御醫로서 明宗의 총애를 받았고, 通政大夫에 올랐다. 宣祖 때 嘉善大夫에 올라 同知中樞府事가 되었으며, 太醫로서 『東醫寶鑑』 편집에 참여하였고, 朴世舉·孫士名 등과 함께 『醫林撮要』를 저술하였다.

本文을 보면 제1권에는 中風과 傷寒, 제2권제10권에는 內科와 外科 部門 등, 제11권제13권에는 婦人科와 小兒科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총 67門에 약 120여개의 病症과 처방(복방) 2700여개가 실려 있는데 서술체계는 먼저 해당 病症의 총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동의학적인 원인을 밝힌 다음 증상과 치료원칙, 치료방법(동약처방들, 찜질법, 훈증법, 침뜸치료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치료방법에서는 食事療法을 중시하면서 해당 질병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음식물을 소개하는 한편 먹지 말아야 할 음식물에 대해서도 간단히 적고 있다.

저자는 이 책 서두에서 역대 유명한 의사 226명의 치료 활동과 그들이 편찬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의 引用書중 우리나라 의서는 『鄉藥集成方』, 『救急方』, 『簡易辟瘟方』, 『醫方類聚』, 『本國退思翁所製方』, 『任彦國方』 등이다.

이 譯書는 『醫林撮要』를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한 책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東醫學用語에 대해서는 간단한 주석을 붙였고 제5권 끝에 「병증 찾아보기」와 「처방 찾아보기」를 실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 책이 동의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東醫治療에 의해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는 醫療人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맺음말

이상으로 우리는 국내외에 산재한 『醫林撮要』古版本의 판본별 특징과 소장현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근간에 일본에서 입수된 內閣文庫 소장의 『의림촬요』(13권13책)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의림촬요』의 편찬과 간행에 관련한 의문사항을 풀어보고자 하였다.

한편 『의림촬요』와 관련한 논문류를 조사해 본 결과 『의림촬요』와 『의림촬요속집』, 역대의학성씨의 의사학적 가치와 후대에 미친 영향성에 관한 주제가 주류를 이루다가 『동의보감』, 『향약집성방』과의 비교 고찰 등 문헌비교가 진행되었다. 이후 최근의 성과로서는 협통문, 담음문 등 세부 病症문목의 연

26) 김동일. 醫林撮要에 대하여, 의림촬요-解題, 서울: 해동의학사, 1999, pp.3-4.

구로 점차 주제가 세분화되고 처방, 병증 등 수록 내용이나 의학 실질에 관한 연구로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논저류와 별도로 북한에서 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의림촬요』 국역과 원문의 교정 및 필사본의 편찬은 민족의학 고전문헌의 보존과 전승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북한의 고전의학 국역정리 사업은 조현영을 비롯한 김동일, 태창득, 리성희 등이 참여하였으며 『의방유취』, 『향약집성방』을 비롯 대표적인 한의고전명저를 국역하고 원문을 교감, 정리함으로써 민족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국한의학의 고유성을 보존하는데 일조했다고 평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海外回歸 中醫善本古籍縱書 시리즈²⁶⁾를 기획하고 이 가운데 한 가지로서 『醫林撮要』校釋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鄭金生, 梁永宣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이 연구 결과는 곧이어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주관하여 개발한 CD-ROM 판 발행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검색 편의와 대조기능 등 편리기능을 탑재하여 효용성을 높였다는 점과 고전문헌의 현대적 실용화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자평할 수 있다.

검색어 : 의림촬요, 양예수, 판본, 국역, 해제

27) 중일공동협력 아래 진행된 이 연구사업의 결과물은 현재 人民衛生出版社에서 12책이 나왔으며, 모두 62종의 고의서가 복원되어 주석본으로 발행되었다.